

## ▶ 가족·아동

## 초등학교 아동의 속담에 대한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른 속담이해능력

조복희(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이주연(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강기숙(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본 연구는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속담이해능력과 활용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속담에 대한 친숙도와 구체성을 조사하였다. 아동기 후기는 인지능력에 있어 구체적 조작기로부터 형식적 조작기로의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기 후기의 인지능력의 변화를 비유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유언어인 속담이해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아동의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발달연령에 적합한 속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서울과 전북지역 초등학교 각각 1곳이 선정되었으며 재원중인 초등학교 4, 5, 6학년생 63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평소 알고 있는 속담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대상 아동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속담을 분석하였으며, 이 속담들을 구체성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대상 아동들은 총 185개의 속담을 보고하였으며, 전체 응답 아동의 32%가 상위 6개에 해당하는 속담을 알고 있었다. 이에 해당되는 속담을 빈도 순위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54%) 2)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45%) 3) 티끌모아 태산(41%), 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40%) 5) 작은 고추가 더 맵다.(35%) 6)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32%) 둘째, 응답한 속담을 구체적 속담과 추상적 속담을 분류한 결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누워 떡 먹기」 등과 같이 시각적 참조물이 뚜렷한 구체 명사를 주로 포함하는 구체적 속담이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으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등과 같은 추상적 속담은 전체의 29%를 차지하였다. 셋째, 대상 아동의 학년에 따라 알고 있는 구체적, 추상적 속담에서 차이를 보였다. 총 응답 빈도 15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4학년이 알고 있는 속담 중 구체적 속담은 71%, 추상적 속담은 29%, 그리고 6학년이 알고 있는 속담 중 구체적인 속담은 65%, 추상적인 속담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학년 아동에 비해 6학년 아동들의 경우 추상적 속담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속담을 통해 아동기 후기의 인지발달에서의 변화와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지능력 발달과 관련된 속담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